

광주시, 추경 5670억 증액...민생 회복·재난 대응 ‘총력’

예산 8조6561억 원으로 확대...국비 연계 현안 사업 집행 속도 높여
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살리고 AI·모빌리티 전환에 재원 배분

광주시가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670억원을 편성해 13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 확정으로 광주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8조 891억 원에서 7% 증가한 8조 6561억 원에 달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국경과제 이행, 재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소비를 살리는 한편, AI·모빌리티 전환과 여름철 호우피해 복구에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68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6억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15억 3000

만원 등 다양한 민생안정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대한 예산도 추가했다.
청년·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9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1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시는 “지역 골목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투트랙 집행”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생회복 지원과 별개로 시비 부담분인 205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재 발행 계획은 이번 2회 추경안에서는 제외됐으며, 관련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 및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연말 정리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AI 중심도시·모빌리티 대표도시’ 도약을 위한 초기·기회 재원에도 무게를 뒀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전환(AI) 실증랩 구축 10억원으로 현장 검증과 사업화 연계를 시작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기획연구 1억 5000만원을 통해 도시 단위 실증 로드맵을 마련한다.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 전환을 위해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4억원도 담았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이나 스마트 공간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해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예비타당성·국비 연계의 선행 작업이라는 점에서 내년 본예산과 국책 과제 공모로 이어질 교두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연재난 대응 예산은 기후위기 상시화에 맞춘 응급·항구복구 투입으로 구성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10억원과 재난대책 204억원을 배정해 도로·하천·소규모 공공시설을 신속 복구하고, 집중호우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에 2억 1000만원을 책정했다. 전통신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 지원 700만원도 포함해 안전 취약지 보강을 병행한다.
교통·생활 인프라 보강도 눈에 띈다. 시민토론회에서 추진 의지를 확인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217억원(지방재)을 반영해 국가계획과 보조를 맞추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9억 8000만원을 편성해 이동권을 넓힌다. 시는 “이동 편의와 안전 투자를 병행해 체감도를 높ی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은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방채는 시장 여건과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광주시는 “국회에 계

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 방향과 연동해 지방재 활용 범위를 검토하되,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관련 지방채 205억원을 빼 재정건전성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부족분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조정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 기조에 맞춘 민생 중심 편성으로 시민 삶의 비용을 낮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투자, 재난 안전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과 내수 위축으로 올해 실질 세입이 약 2200여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어서 시는 전담 TF를 꾸려 시설비·일상경비를 줄이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캄보디아 범죄 관련 ‘해외 취업사기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행 단계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

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채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건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방첩사 내년까지 전면 개편”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 등 권한 과다...유사 기능 타 기관으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 등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개편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 계획도 내놴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로 흡수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

다.
국방부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대구성군사령부 구성은 마쳤으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전사령부, 연합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잡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